

도내 대학 4·3석박사 과정 개설 요원

**별도 학과 의견 불구
기존 학과 과목 포함**

전문 연구자 부족 대두
지난해부터 논의 본격
정원 확보 등 문제 고려
제주대 융합전공 편성

지난해 제주4·3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주4·3학 석·박사 과정' 신설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대학원 교과과정 개설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제주대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5개 학과의 대학원 과정에서 '제주4·3 융합전공'이 개설된다.

융합전공은 두 개 이상의 학과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전공 과정이다.

참여학과는 국어국문학과와 사학과, 사회교육학부 일반사회교육전공,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다.

제주4·3 융합전공은 학과별로 전공과 제주4·3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올해는 해당 과정을 처음 시행하면서 신입생을 받지 않고 참여 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수강신청을 받는다.

제주4·3 관련 대학 교육과정 신

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4·3 기관과 단체에서 4·3 연구 전문인력 부족으로 도내 교육기관에서 4·3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대,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 8월 토론회에서 지역대학 4·3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공론화했다.

당초 논의 당시 4·3이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협동과정 형태의 4·3학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협동과정은 개별 학문으로 답을 수 없는 연구 분야를 여러 학과 교수가 모여 교육하는 방식이다. 융합전공은 기존 학과에서 전공을 추가

하는 방식이라면, 협동과정은 별도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원 확보와 해당 과목의 수요 등을 고려해 융합전공으로 추진 방향을 선회했다.

4·3융합전공 책임교수를 맡은 이소영 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현재는 4·3융합전공을 알리고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향후 협동과정을 신설할지, 융합전공으로 과목을 추가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대는 지난해 10월 4·3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4·3 연구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은수 기자

“파크골프 인기 이용자 감소” 게이트볼장 방치·폐쇄 잇따라

제주시, 실태조사 결과
총 124곳 중 33곳 수준

제주지역 이용자 감소로 방치되거나 폐쇄된 게이트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의 지난해 게이트볼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4곳 게이트볼장 가운데 방치 또는 폐쇄된 게이트볼장은 모두 33곳 수준이다.

특히 이 외의 게이트볼장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5~30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 제주시는 최근 파크골프의 인기로 게이트볼장 이용자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용률이 저조한 동·서부 지역 게이트볼장 2곳

을 다목적 복합체육시설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앞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부지역(삼양동)은 탁구장으로, 서부지역(한경면 신양리)은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으로 시설 개선이 요청된 바 있다.

우선 제주시는 사업비 5억7300만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 게이트볼장을 주민들의 시설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서부지역은 검토 중에 있으며 동부지역은 오는 9월께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용률이 저조한 게이트볼장에 대해 올해 시범적으로 시설 개선이 이뤄질 경우 해당 사업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더 많은 지역의 게이트볼장을 시설 개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최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랑의집 이용자와 보호자들이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은수 기자

폐쇄 유예 사랑의집...“지원 대책 촉구”

17일 부모·이용자 기자회견

최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집' 이용자와 보호자들이 행정처분 3년 유예기간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사랑의집' 정상화 추진 부모 일동은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폐쇄 행정처분 유

예기간 3년간 시설 운영과 재정문제, 종사자 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쇄 결정이 내려졌지만 유예기간만이라도 시설 안정화를 통해 큰 변화나 기복 없이 (이용자들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사

자 증원과 이용자 지원 방안으로, 신규 시설장 선임 이전에 제주시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3년간 전원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2일 사랑의집에 대해 법인의 운영개선 의지 부족과 경영난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용자 전원 조치 등을 위해 유예를 두고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은수 기자

서귀포시 여명어린이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로 재탄생

서귀포시는 사업비 2억7600만원을 투입해 여명어린이공원내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7월 완공했다고 밝혔다.

기존 여명공원은 진입부 경사 낮춤석 미설치로 인해 장애인 및 노약자 진입이 불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의 다양성이 부족해 공원 주변이 주거지역임에도 이용도가 낮았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3월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탄성포장 694㎡, 무장애조합 놀이대 1곳, 바구니그네 1곳, 흔들 놀이대 3곳 설치 등을 통해 기존 노후화됐던 여명공원을 무장애통합놀이터로 재탄생했다.

사업대상지는 서귀포시 내 어린이놀이시설 2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에 수립한 무장애통합 어린이놀이터 기본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도출해 선정됐다.

김법수 기자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제주시 용담·삼양·외도 등

제주시는 용담·삼양·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의 하반기 방학 프로그램과 일일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운영될 프로그램으로는 펜드링, 샌드아트, 미니 하프 등 18개 방학 프로그램과 노래교실 등 14개 일일 강좌로 모두 32개 강좌에 4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기한은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7월 23일까지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7월 24일까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7월 29일까지다. 신청은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https://ydin.or.kr>) 접수가 가능하며 삼양·외도는 방문 접수해

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담(064-749-6683), 삼양(064-759-9791), 외도(064-711-8228) 등 센터별로 문의하면 된다.

신금록 제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프로그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목적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동아리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2023년 상반기에 총 4305명을 대상으로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양경익 기자

FFF JEJU 제5회 농촌융복합 제주국제박람회
2023 K-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

2023. 7. 21 금
7. 22 토
7. 23 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푸드테크 & 미래의 농촌 X 축제형 박람회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푸파페 제주!**

6차산업제주국제박람회의 새로운 이름,
제5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 푸파페 제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파페 제주를 즐기기 위한 CHECK LIST!

- 최고의 '메이드인제주'만 모인 마켓 플레이스
청년농부장, 로컬푸드, 전통주, 화장품, 커피, 와인 등 맛난 먹거리와 제품 푸짐
- 직접 보고 만들고 즐기는 온가족 참여 가능한 체험공간
다양한 만들기와 곤충 체험, 건강한 메밀 풀장, 간식과 음료까지 온가족이 즐겨요~
- 푸파페 제주의 하이라이트는 **팡팡 쏟아지는 선물**
푸파페 OX퀴즈 한마당, 매일 100명에게 쓰는 영수증 이벤트, 그 외에도 푸짐한 선물 이벤트까지~
- 푸드테크 & 농촌융복합산업 글로벌 전문가 총출동
국내·외 전문가, 미국, 브라질 등 농촌융복합산업 국제전문가 7개 모인 국제포럼도 주목

사전등록에 당첨된 참가자엔 현장에서 선물이 와르르!

푸파페 제주 참가객에게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 추첨을 통해 당첨자는 현장에서 상품 지급

홈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

* 이벤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리 사전등록 및 인스타그램 팔로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6차산업협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미디어 파트너 **제주소리**

제주 **CBS**